

조선시대 병영·전통문화 체험

19~23일 ‘고창 모양성제’ 열려

조선시대 병영생활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제39회 고창 모양성제’가 19일부터 23일 까지 5일간 고창군 고창읍성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모양성, 그 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병영문화 재현행사와 고을기 계양식, 출정식, 원님 부임행차, 전통 혼례식 등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일 오후 2시 살내체육관에서 고창읍성까지 군악대와 취타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식이 눈길을 끈다. 축성 고을기 계양식(19일)은 조선 단종때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 성황기에 참여한 전라·경상·제주지역의 13개 시장·군수가 지자체 깃발을 내거는 행사다. 원님 행차(20일)에서는 조선시대 지방수령의 부임 모습을 재연한다. 상설행사로 축제의 진수인 모양성 답성 놀이는 머리에 돌을 이고 모양성곽(1684m)을 세 바퀴 돌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사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통술 잘 빚는 ‘국선생’ 뽑는다

19~20일 전주서 ‘만추만취 한옥마을 술축제’

전주 전통술박물관과 사회적기업 ‘수을’은 전통술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2012 만추만취(晩秋滿醉) 한옥마을 술축제’를 19~20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술을 가장 잘 빚는 명인을 뽑는 ‘국(麴)선생 선발대회’를 비롯해 ‘국선생과의 인터뷰’, 전통 술잔 전시회, 한·일 전통주 포럼 등이 진행된다. 핵심 프로그램인 ‘국선생 선발대회’는 청

주와 막걸리 등 2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며 최고의 맛과 향을 지닌 술을 빚은 명인에게는 상금과 함께 ‘국선생’이라는 칭호를 준다.

부대행사로 우리 술 품평회와 막걸리 거리기 체험 등이 열린다.

수을 박시도 대표는 “우리 술의 가치와 다양성을 널리 알리는 한국의 대표 술 축제로 만들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 죽산에 조사료 생산시설 건립

내년까지... 하루 80t 규모

김제시 죽산면에 볏짚과 녹비자료를 축산용 조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건립된다. 김제시는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정부 지원을 받아 2013년까지 죽산면 연포리 사업장에 하루 80t 규모의 조사료 생산유통시설을 짓는다”고 17일 밝혔다.

새 시설이 가동하면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연간 2만5000t을 생산하는 조사료를 연간 3만6000t까지 늘려 지

역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 또한 조사료 부산물을 버농사에 활용하는 순환농업이 활발해진다.

김제시 관계자는 “관내 2240ha가 지난 9월 정부의 조사료 생산지구로 지정받아 5년간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비, 기계·장비비,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며 “지역이 조사료 생산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 청보리 사일리지 ‘우수상’

김제시가 출품한 청보리 사일리지가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제5회 전국 사일리지 품질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전주김제완주축협과 동진강 낙농축협에서 출품한 청보리 사일리지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조식 조사료화회는 공동으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와 겨울철 휴경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품질 경연대회에는 전국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서 151점의 사일리지를 출품했다. 조사료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평가위원회는 간이평가로 30점을 선발한 후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13개소에 대해 시상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서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각종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이동 신문고’는 행정·문화·

교육, 복지·노동, 교통·도로, 운영지원,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산업·농림, 환경, 법률상담 등 9개 분야에 걸쳐 해당 전문 상담관들이 직접 상담하거나 접수를 받는다. 또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옛날 밀떡구이 “꿀맛이야”

최근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화덕에 밀떡을 구워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와일드푸드 축제는 다양한 야생 음식과 추억의 음식을 맛보고 야생 생활을 체험하는 이색 축제다.

/연합뉴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본격화

용역비 5억 내년 교과부 예산 첫 반영

市, 인허가·행정지원 협약 준비 박차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내년 예산 반영이 불투명했

지만, 군산시와 전북대의 노력으로 막판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군산 전북대병원원의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인·허가, 행정지원, 의료진 규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 체결 준비에 돌입했다.

또 시는 전북대 병원 측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추진단’을 구성하는 방

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비 반영으로 사실상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절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면서 “진입도로 개설 등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전북대병원은 2600여억 원을 투입해 옥산면 일대 9만8000여㎡에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18년 개원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단신

전북 공립 중등교사 경쟁률 16.8대 1

2013년도 전북 도내 공립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시험 경쟁률이 평균 16.8대 1을 기록했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8개 과목 94명 모집에 1578명이 지원했다. 과목별로 보면 영양 과목이 2명 모집에 64명이 지원, 32대 1로 최

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구과학 과목은 6명 모집에 52명이 지원해 8.7대 1의 최저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시험은 11월10일, 2차 시험은 12월 15일, 3차 시험은 내년 1월 22~24일에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발표.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나운 작은도서관 오늘 개관

군산시 나운 작은도서관이 18일 군산문화원 1층에 문을 연다. 시는 1억8000만 원을 투자해 군산문화원 1층 184㎡를 리모델링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다.

내부 시설로 일반 자료코너와

아동 자료코너, 간행물 코너, 노트북 코너 등이 있으며, 1여 권의 도서를 구비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산시내에는 현재 구암·월명·미성·미풍·흥남·나포·조촌 등 7개소가 조성돼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20일 정읍서 무에타이 최강자 가린다

무에타이 격투기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20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프로선수과 동호인 등 6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무에타이격투기 챔피언 타이틀매치를 연다. 대회는 프로 11경기과 함께 초등부, 중등부, 대학·일반부, 여성부 등 아마추어 65

경기도 함께 열린다. 우수 아시아선수권자인 전술기 선수를 비롯해 전북 대표인 이재훈·김윤진·김홍수 선수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태국 병사들의 수련무술인 무에타이는 정읍에서 500여명의 동호인들이 건강을 다지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parks@

순창국악원 농악단 日 초청공연 호평

순창국악원 동우회 농악단(회장 박정열) 소속 단원들이 지난 13~15일 일본 가고미사(鹿兒島)현 축제현장에서 초청해 사물놀이와 판굿 등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일본 농악공연은 순창 국제화연구회가 전북도와 순창군의 후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는 민간 국제 교류사업 일환으로 순창

농악을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를 갖는 등 주민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공연단은 그동안 순창군과 교류를 해오고 있는 미나미규시(南九州)시국제 교류협회 환영회를 통해 양 지역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고창서 열려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서귀읍 농식품부 장관과 이강수 고창군수, 박래환 군의장, 전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회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다른 모습, 같은 미래 2020”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총회와

성공사례 발표 등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강수 군수는 “청정하수 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충장로 1가입구 탐앤탐스 8층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이바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 점심 ₩12,900
- 평일 저녁 ₩14,900
- 주말, 공휴일 ₩15,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 ~ 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 주차안내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안산 1주차장)
- 승합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악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가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금액	회비선택하신후	상품 선택후	적립금액+	여행후
월 회비 적립금	40,000원	6개월 적립후	고객센터예약	지원금액	잔금적립후
최대 360만원까지	60,000원	여행가능	목돈 없이 여행		계약 만료
	120,000원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만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본 무경험,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 고객님의 회사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